

전년도 10문제 그대로 베껴 출제한 고교시험

전남지역 고교 문제 유출 이어 시험문제 출제도 엉망 도교육청 감사서 적발...대부분 징계 없이 주의 처분

목포 사립고 시험문제 유출에 이어 전남 지역 상당수 고교에서 시험 문제까지 엉망으로 출제된 것으로 드러났다.

최근 전남도교육청 감사에서 신안 A고 교 정기고사(지필고사) 특정과목 전체 시험문항 31개 가운데 10문제가 전년도 시험문제에서 그대로 베껴 출제된 것으로 드러났다. 울 상반기 감사에서도 2곳 이상의 고교에서 상식 이하의 출제 오류(광주일보 2018년 8월 7일자 6면)가 있었기 때문이다.

학교 현장에서 가장 엄격하게 다뤄져야 할 시험문제에서 잇따라 결정적 오류가 드러난 것과 관련, 그 배경에 교육청의 솜방망이 처분이 작용한 것 아니냐는 목소리가 나온다. 감사에 나선 도교육청은 문제점을

적발하고도 징계 대신 주의에 그쳤다.

29일 전남도교육청에 따르면 도교육청은 지난달 18~21일까지 신안 A고교 종합 감사 과정에서 2017년 1학년 1학기 기말고사 과학과목 지필평가 전체 31문항 가운데 10문항이 전년도 지필평가에서 출제된 문제가 동일하게 출제된 사실을 적발했다. 전년도 출제문제 일부 또는 전체를 그대로 출제하는 것은 평가 신뢰도, 객관도, 공정성에 악영향을 주는 것으로 엄격하게 금지돼 있다.

한 두문제도 아닌 해당 과목 시험문제의 32%에 이르는 문제를 베껴 출제하는데, 단 한 문제라도 전년도 문제를 그대로 출제하는 것은 '전남도 중·고교 학업성적관리 지침', '해당학교 학업성적관리규정'을 위

반한 행위이지만 해당 고교 관계자 누구도 징계 처분을 받지 않았다.

도교육청이 '사안이 경미하다고 판단'하고 담당교사 등 관련자 3명에 대해 주의 처분만을 내렸기 때문이다.

주의 처분은 '감사결과 위협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사실은 있으나 그 정도가 경미한 경우'에 내려지는 것으로 징계는 물론, 그보다 수위가 낮은 경고보다도 더 낮은 신분상 처분이다.

앞서 울 상반기 감사에서 전남도교육청은 시험문제 출제 오류를 여러 학교에서 발견했지만 모두 주의 처분을 내렸다.

전남 B고교 감사에서는 2016~2017학년도 지필평가 출제오류가 다수 발견됐다.

2016학년도 2학기 중간·기말고사, 2017학년도 1학기 중간·기말고사, 2학기 중간고사까지 모두 5차례 지필고사를 치르는 동안 15개 과목, 18문제에서 출제오류를 범했다. 이 가운데 2017학년 1학기 중간·

기말고사에서만 9과목 12개 문제가 오류로 판명됐다. 출제 오류 내용은 '문제지에 정답 표기(수학과목), 정답 없는 문제 출제(물리), 정답 2개인 문제(윤리) 등이다.

전남 C고교는 2017학년도 중간고사에서 특정과목 시험 문제지에 서술문항(3문제) 정답이 인쇄된 채 배부했다. 담당교사 부주의였다. 학교 측은 서술문항 전체를 '0점' 처리했으나 이후 학업성적관리위원회에서 서술문항 재평가를 결정했다. 이에 따라 학생들은 중간고사 종료 1주일 후 재평가를 치러야 했지만 이로 인해 책임을 지는 학교 관계자는 없었다.

전남도교육청 관계자는 "시험문제 출제 관리 영역은 학교와 교사의 핵심 영역인데도 실수가 끊이지 않고 있다는데 교육가족 모두가 책임감을 느껴야 한다"면서 "앞으로는 교육 수요자(학생) 입장에서 엄격한 감사와 처분이 이뤄지도록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김형호 기자 khh@kwangju.co.kr



의용소방대 소방기술 경연대회 제29회 광주시 의용소방대 기술경연대회가 29일 광주시 서구 상무시민공원에서 열렸다. 참가자들이 소방호스 끌기 경주를 하고 있다. /최현배 기자choi@kwangju.co.kr

초중고 보전교사 배치

광주 99%·전남 57%

광주 학교 대부분에는 보전교사가 있지만, 전남 10곳 중 4곳 이상에는 배치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29일 국회 교육위원회 자유한국당 김현아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4월 현재 광주 316개 학교 가운데 312곳(98.7%)에 337명의 보전교사가 근무하고 있다.

전남에서는 827개 학교 중 474곳(57.3%)에 516명이 배치된 것으로 나타났다.

광주에서는 보전교사가 없는 학교가 단 4곳이었지만 전남에서는 42.7%인 353곳이나 됐다. 전남의 보전교사 배치율은 전국에서도 가장 낮았다.

학교보전법은 모든 학교에 보전교사를 두도록 했으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하 학교에는 '여러 곳을 나눠 맡는 순회 보전교사를 둘 수 있다'는 단서 조항이 있다.

같은 법 시행령은 또 "18학급 미만 초등학교와 9학급 미만 중·고등학교에는 보전교사 1명을 둘 수 있다"고만 규정해 소규모 학교에서는 순회 보전교사를 두지 않아도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다는 점이 한계라고 김 의원은 지적했다.

김 의원은 "지역별 학습수와 학생 수에 맞게 합리적으로 교사를 배치해 학생들의 건강한 생활환경을 조성하는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지난해 광주·전남지역 학교에서는 안전사고가 각각 3155건, 1441건이 발생했다.

/김형호 기자 khh@kwangju.co.kr

'인권탄압 상징' 경찰 보안분실 23곳 여전히 운영

광주 1곳·전남 2곳

한때 인권침해 논란의 장소였던 경찰 보안분실 중 상당수가 여전히 외부에 사무실을 두고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9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권미혁 의원이 경찰청에서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이날 현재 전국 26개 보안분실 중 23개가 청사 외부 건물에서 운영중이며, 이 가운데 22개는 용도 변경 계획조차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정보국 외근요원의 거점으로 활용돼온

보안분실은 과거 이적행위, 국가안보에 위해가 되는 행위(국가보안법 위반, 간첩 행위, 간첩죄에 해당하는 행위 등)를 한 사람을 체포해 조사하던 공간으로, 외부 건물에서 피의자 등을 압박하고 위촉시키는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이에 따라 경찰개혁위원회는 외부에 있는 보안분실 이전을 권고했으며, 민감용 경찰청도 지난 8월 별관과 분실로 운영되는 정보·보안사무실을 청사 내로 이전할 것을 지시했다.

하지만, 전국 대부분의 지방경찰청에서

는 청사내에 옮길 공간이 없고, 별도의 공간을 마련하기 위한 예산확보도 쉽지 않다며 이전에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광주청도 남부경찰서 뒷편에 있는 보안분실을 청사 내로 옮기려 했으나 장소를 확보하지 못해 일단 남부서 내로 일부 기능을 옮기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전남청의 경우 목포와 순천에 각각 1곳씩 보안분실 2곳을 운영중인데, 우선 순위에 있는 보안분실 건물만 순천시에 반납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오늘의 날씨

해돋이 06:51 달뜨기 22:31
해질 17:41 달짐 12:11

찬바람 불

바람이 강하게 불어 춥겠다.

광주	맑음	6/14	보성	맑음	3/14
목포	구름많음	8/14	순천	맑음	6/15
여수	맑음	8/15	영광	구름많음	6/14
나주	구름많음	4/14	진도	구름많음	6/14
완도	구름많음	8/15	전주	맑음	5/13
구례	맑음	3/14	군산	맑음	5/13
강진	구름많음	5/15	남원	맑음	3/13
해남	구름많음	4/15	홍산도	구름많음	11/15
장성	맑음	5/13			



◇바다 날씨

		오전		오후	
		풍향	파고(m)	풍향	파고(m)
서해 남부	앞바다	북서~북	0.5~1.5	북서~북	0.5~1.5
	먼바다	북서~북	1.5~2.5	북서~북	1.0~2.0
남해 서부	앞바다	북서~북	0.5~1.5	북서~북	0.5~1.0
	먼바다(동)	북서~북	1.0~2.5	북서~북	1.0~2.0
	먼바다(서)	북서~북	1.0~2.5	북서~북	1.0~2.0

◇물때

목포	간조		만조	
	10:45	05:38	23:32	18:27
여수	06:09	00:02	19:00	12:55

◇주간 날씨

31(수)	11/1(목)	2(금)	3(토)	4(일)	5(월)	6(화)
☀	☀	☀	☀	☀	☀	☀
5/14	4/16	4/17	6/18	7/19	8/19	9/18

◇생활지수

뇌출중	보통
감기	보통
미세먼지	좋음

여성 홀로 근무 전남 보건지소 관사 36% 비상벨 없어

여성 혼자 생활하는 전남지역 보건지소의 관사 3곳 중 1곳은 아직도 비상벨조차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016년 설마를 여교사 성폭행 사건 이후 정부는 도서벽지근무 안전종합대책을 내놓았지만, 당시 상황을 모면하기 위한 면피용 대책이 아니냐는 비난이 일고 있다.

2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광수 의원(민주평화당·전북 전주갑)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2018년 전국 보건지소 근무 현황' 자료에 따르면, 여성이 혼자서 근무하는 전남지역 보건지소는

315곳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비상벨이 없는 보건지소는 134곳(42.5%)이었고, CCTV 미설치 보건지소는 98곳(31.1%)에 달했다. 근무 중 비상상황이 발생하면 대처방법이 없다는 의미다. 여성 1인 근무 보건지소 중 오히려 관사생활을 해야 하는 곳은 145곳이었고, 이중 35.9%인 52곳에는 비상벨조차 설치되지 않았다. 전국에서 가장 많은 수다. 또 17곳(11.7%)에는 CCTV도 없었다.

/박정욱 기자 jwpark@kwangju.co.kr

광주 동구 지산·학운동 2곳에 공영주차장

광주시 동구가 지산동 법원 앞과 학운동 일대 주차난 해소에 나선다. 동구는 "2019년 주차환경개선 및 보행환경조성 공모사업"에 선정돼 국·시비 66억원 등 총 사업비 94억원을 확보했다"고 29일 밝혔다.

동구는 74억원을 투입해 법원·검찰청·무등산국립공원 등이 있는 지산동과 학운동에 각각 1곳씩 총 150면 규모 공영

주차장을 조성할 계획이다.

또 최근 젊은층에게 인기를 끌고 있는 동명동 카페의 거리는 국비 10억원 등 예산 20억원을 들여 차로를 재정비하고 보도를 조성해 보행환경개선에도 나선다. 동구 관계자는 "앞으로도 동구 곳곳의 주차난을 해결하고 보행자와 운전자 모두 만족하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용희 기자 kimyh@

노안수술 받으면

돋보기 없이

J1, J2 글자를 읽을 수 있습니다

1652

68247581

251649783

130758492

246371280

462810973

576214302

691749802

877811008

광주신세계백화점 대극선 눈모양빌딩

● 신세계안과 문의 1566-9988

Approved Partner

130년 전통 독일 지멘스 보청기

'새로운 소리를 듣다'

첫째 .한 달 착용후 불만족시 100% 환불

셋째 .4개지점 어디서든 A/S 및 소리조절

둘째 .보청기정부지원금 131만원 신청

넷째 .65세 이상 어르신 최대 50% 할인

상무지구: 376-1010 / 북구말바우: 268-9001 / 광산·수완: 954-1030 / 전대의대: 430-8801